



가리키는 나무

가변설치
디지털 콜라주* 프린트, 종이, MDF,
각 130 x 45 x 45 cm
2024

(*웹에서 수집되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들, 아크릴, 크림, 디지털 드로잉, 3D 프린팅 오브제, 모델링 페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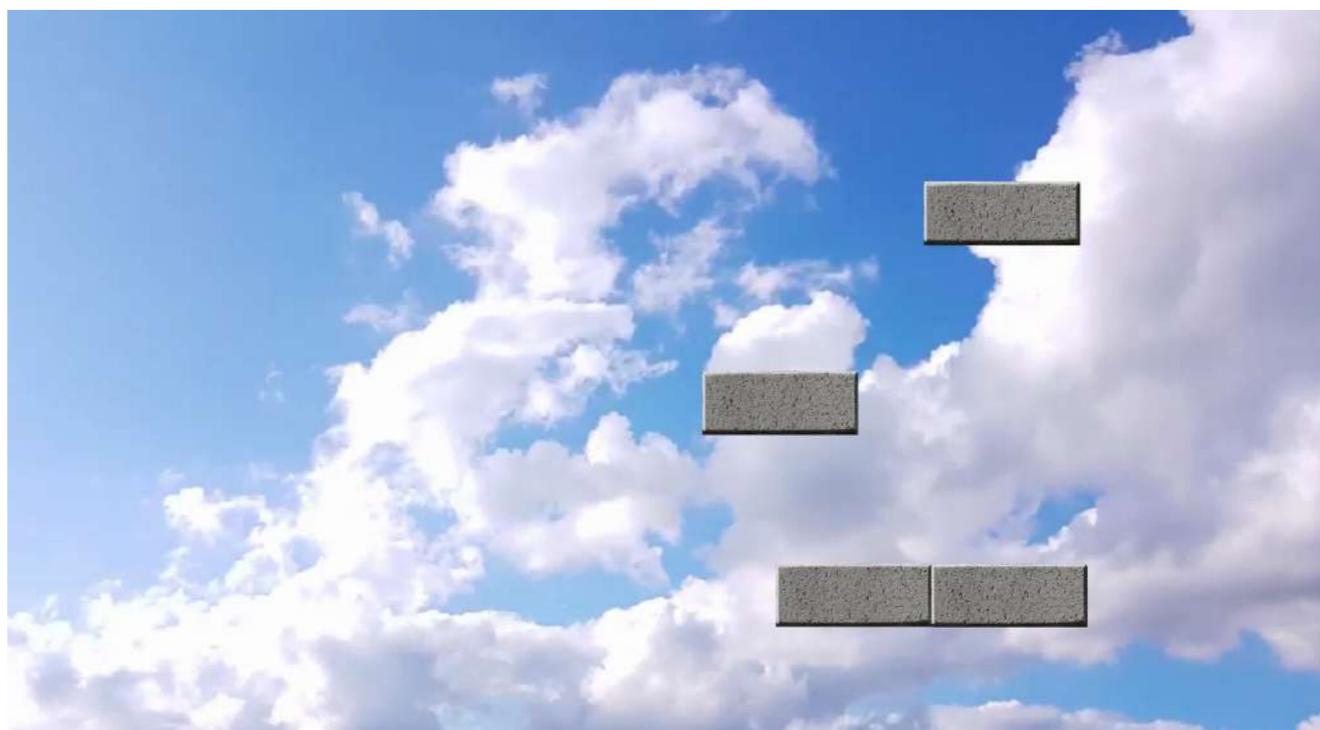


흔히들 태양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 주변에 꼬부라진 선을, 나무는 삼각형의 아래에 네모난 기둥을 그린다.
그건 사람들 간의 약속 중 하나이다. 그러한 형상을 해와 나무로 보기로 한 것이다.

기호와 약속은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가끔은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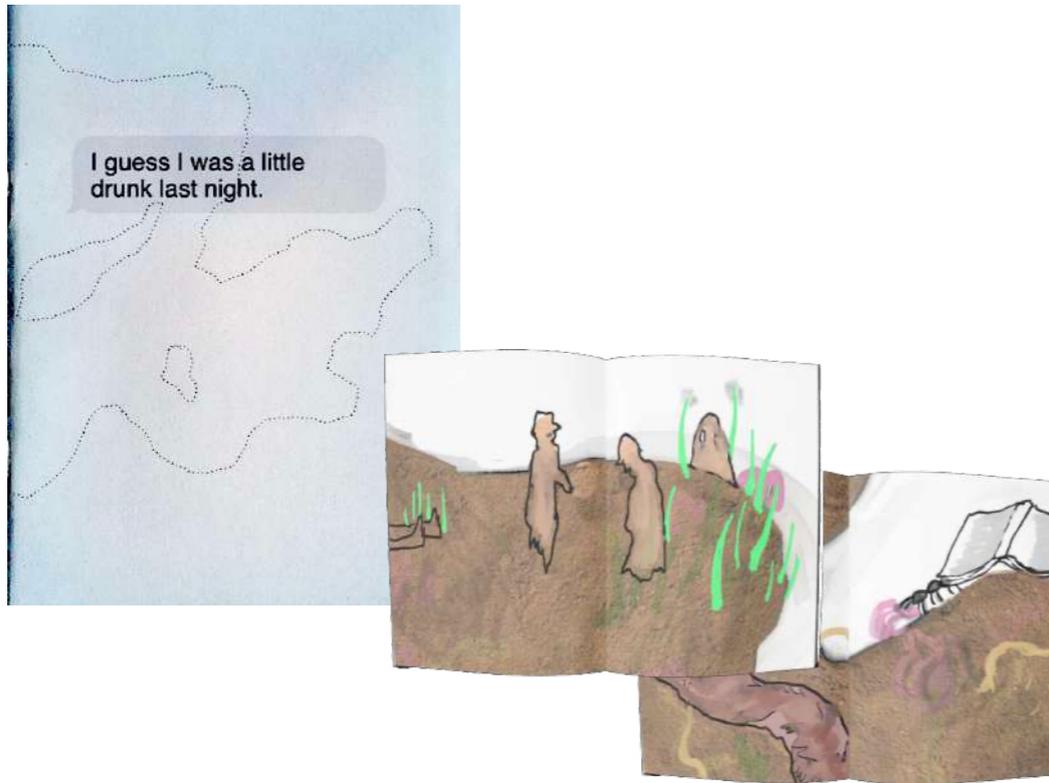
단체널 비디오
2분 30초
2024



https://youtu.be/_d98cLM4NyY



어떤 벽은 공간을 가르고, 어떤 벽은 시선을 통제하며, 또 어떤 벽은 그 자체로 이야기의 구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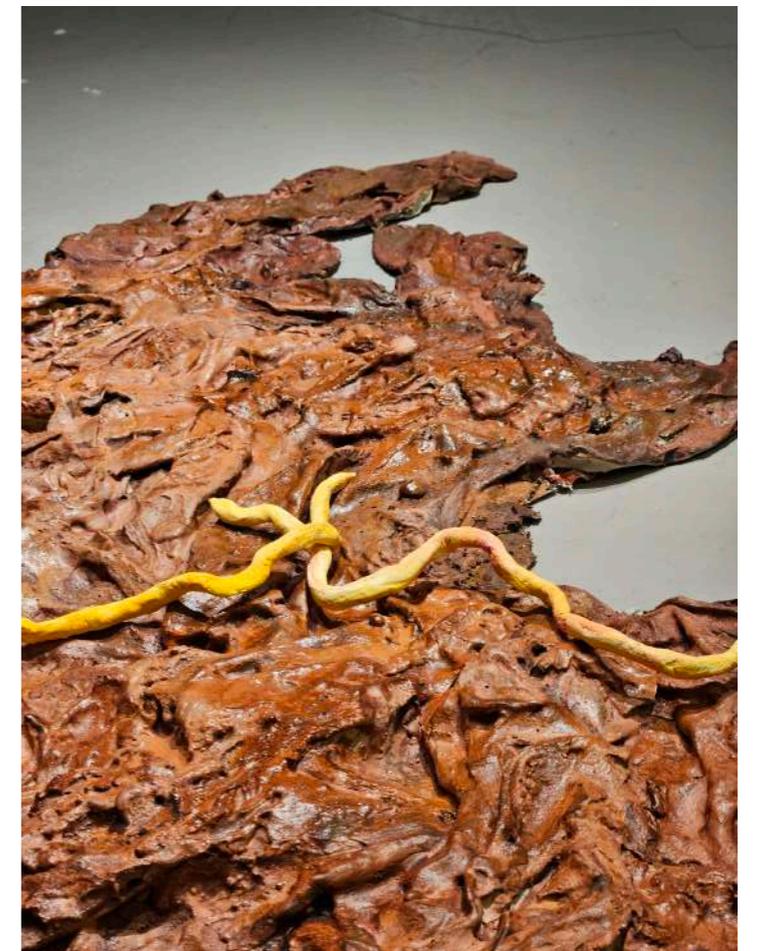
어제 나 좀 취했었나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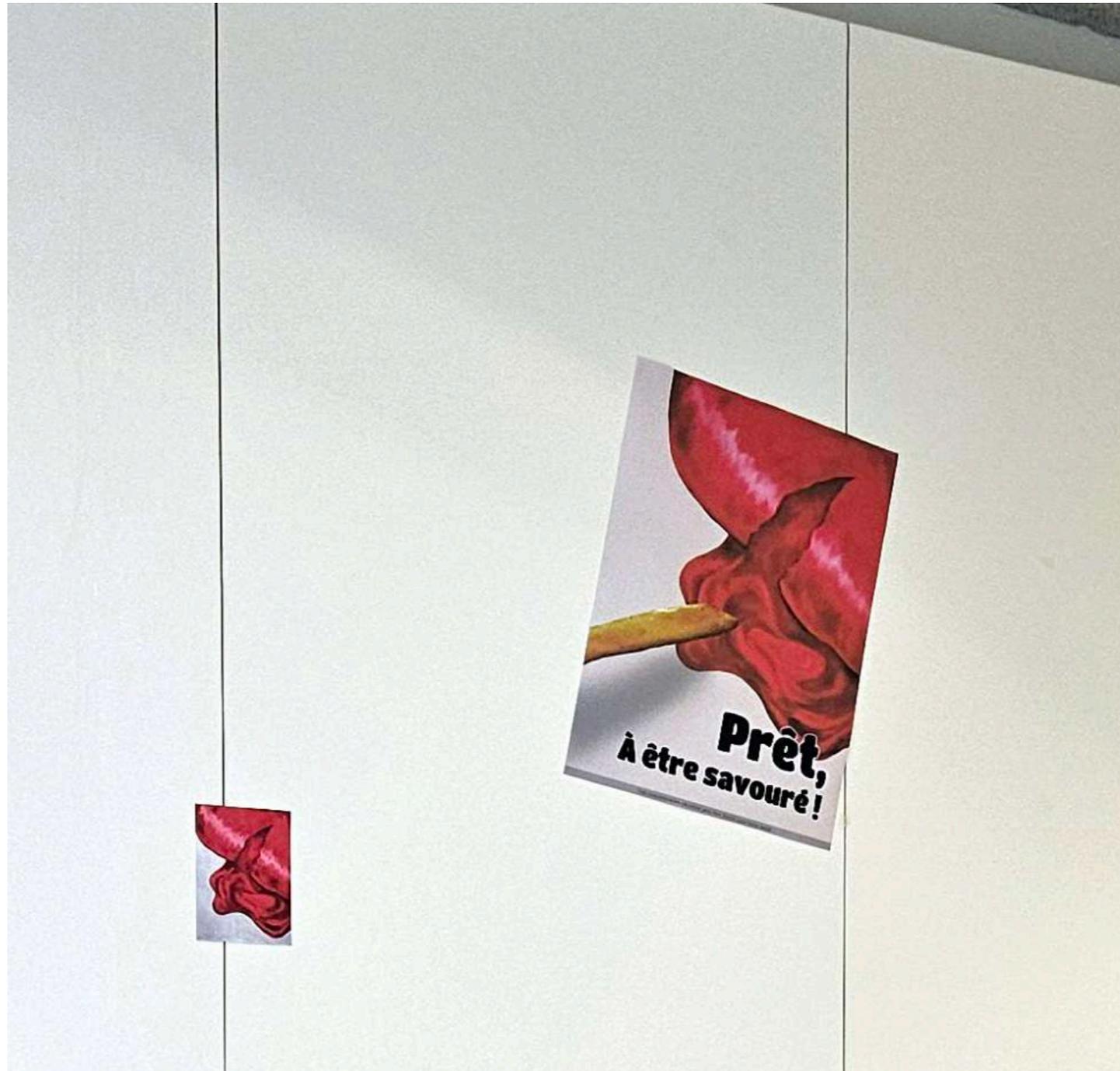
소책자
16 페이지
15 x 21 cm
2024

방금 게워낸 토사물 안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제 먹은 라면, 아스팔트 먼지, 쌓아둔 감정, 그 위를 기는 벌레들, 취소한 비행기표 까지도….

토

가변설치
신문지, 비닐, 풀, 아크릴, 바니시, 스프레이, 모델링 페이스트
100 x 100 x 15 cm
2024





모습 (XS), 엽서, 디지털 프린트, A6, 2024

신선!, 평면회화를 활용한 디지털 콜라주, 웹수집된 이미지, 편집되고 재구성됨, 2024

우리는 옆구리가 터진 케첩통에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모습도 그 케첩통과 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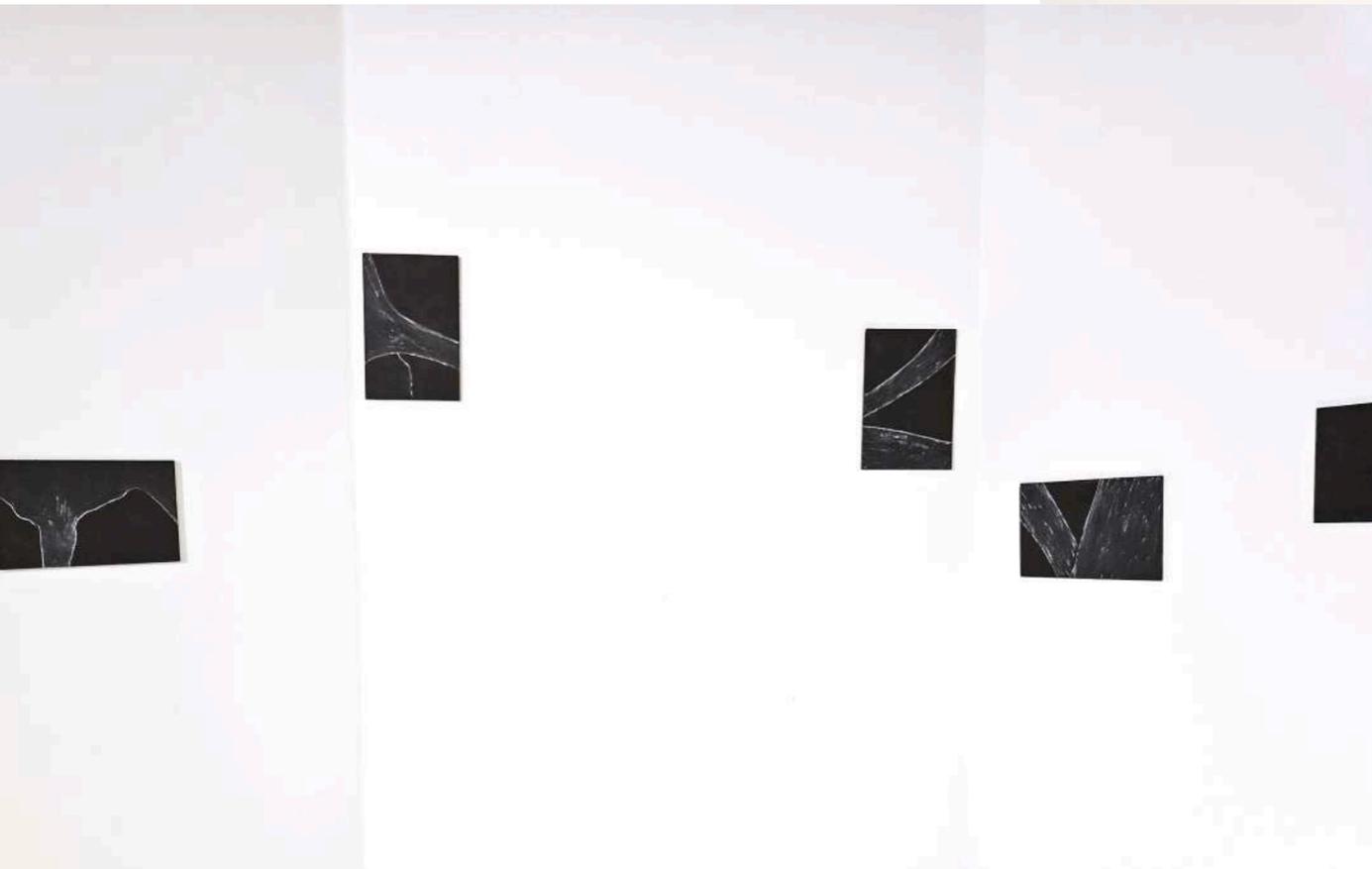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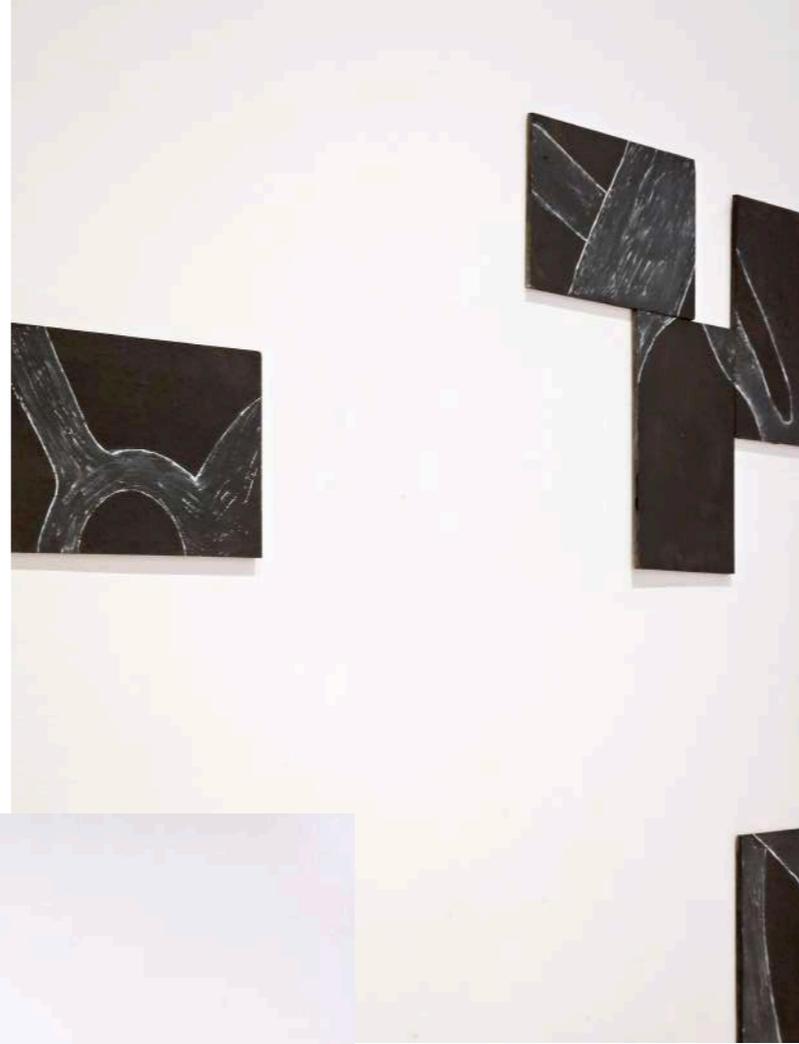
신선!

가변 설치
포스터와 엽서, 디지털 프린트
가변 크기
2024



모습, 종이 위에 아크릴, 75 x 100 cm, 2023

숨겨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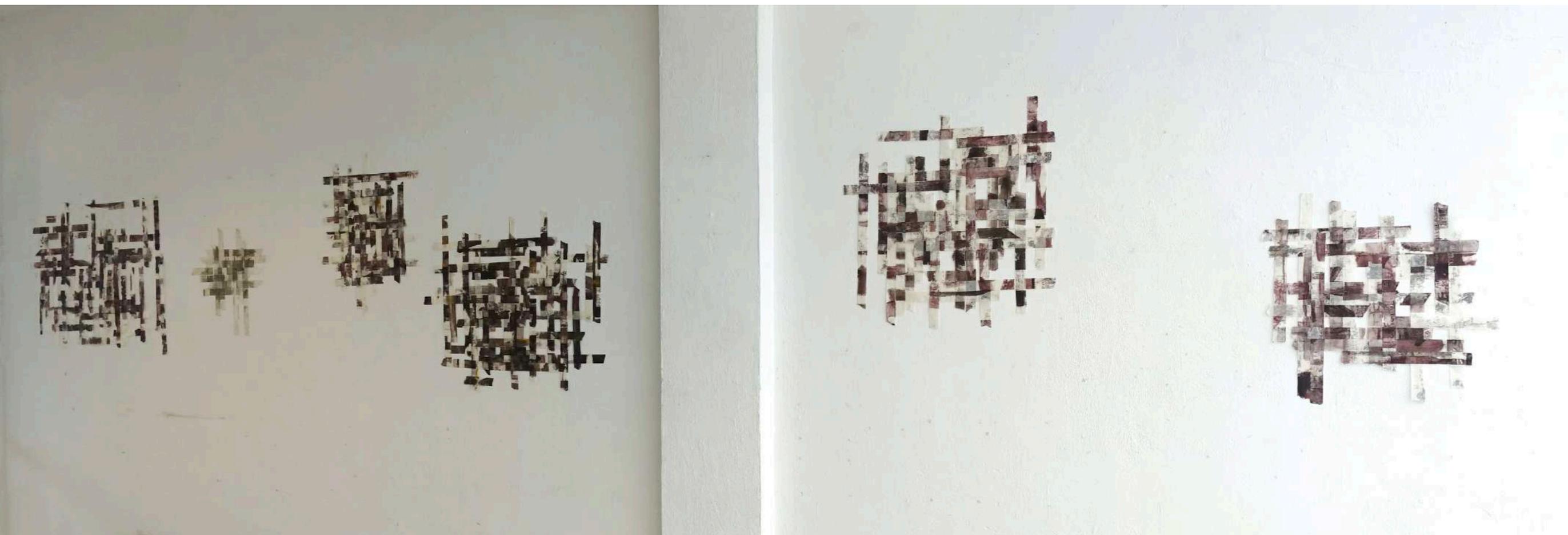


갈래

가변설치
20개의 드로잉, 나무판 위에 아크릴, 펜, 지도
각 20x13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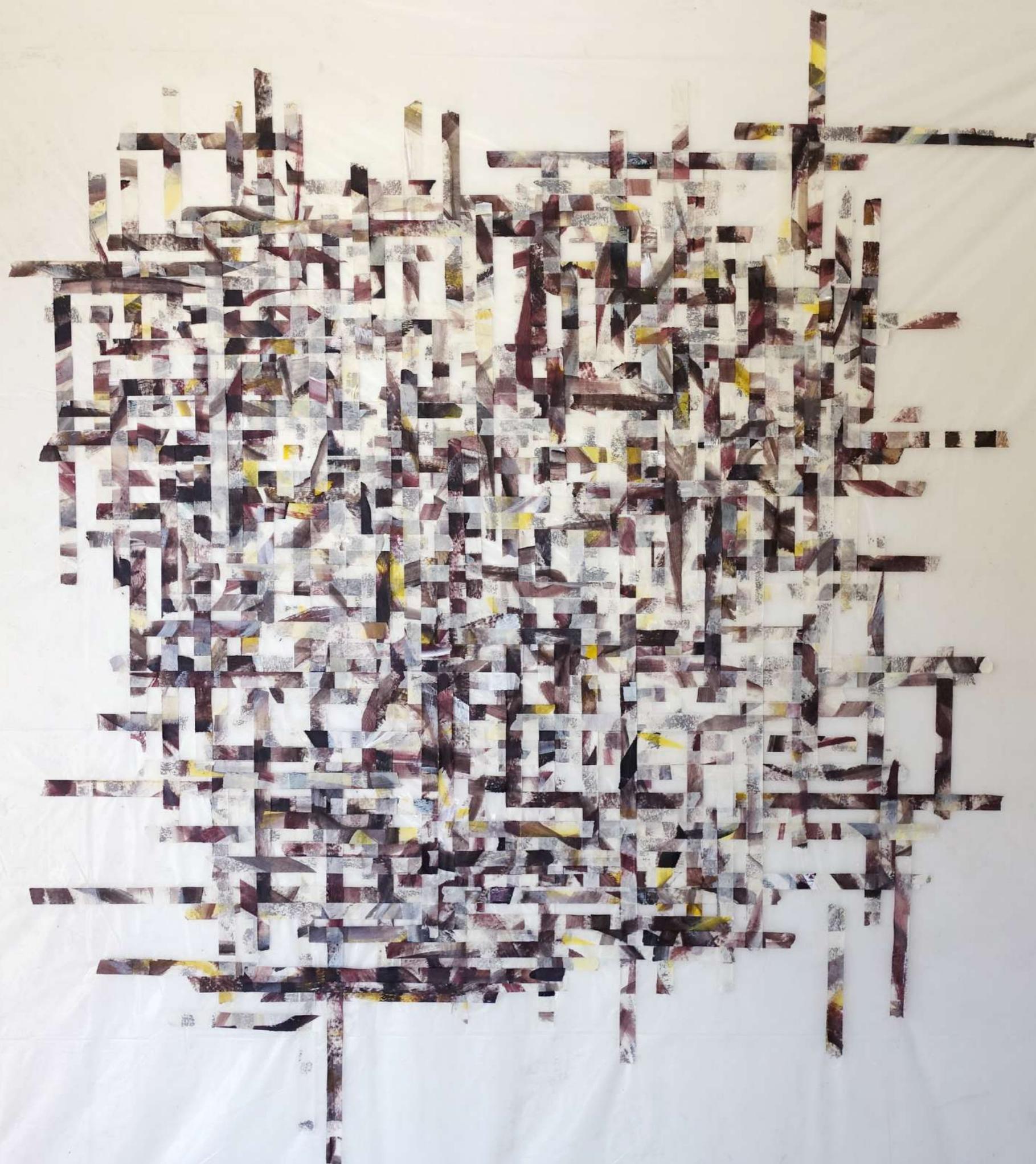
길목 마다

가변설치
종이테이프에 아크릴, 풀
가변크기
2022



무제 1-6, 종이테이프에 아크릴, 풀, 2022, 가변크기

각 덩어리는 고유의 무늬를 지닌 여러개의 선들의 집합이다. 그들은 축적된 시간과 움직임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 속에, 지나온 과정은 단지 파편화된 힌트로만 남아있다.



막다르고 휘어진 고속도로

종이테이프 위에 아크릴, 풀, 200 x 200 cm

안과 밖 : 고양이

가변설치, 참여형
현수막에 디지털 프린트, 천 위에 아크릴, 하드보드지, 철사
87 x 225 cm
2022



현실에서 만남은 한 순간,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공간들의 안과 밖이 뒤집힌다면, 산발적인 만남들의 출몰을 상상해본다.

안과 밖 : 뒷마당

가변설치, 참여형
현수막에 디지털 프린트, 스프레이, 마스킹 테이프
80 x 240 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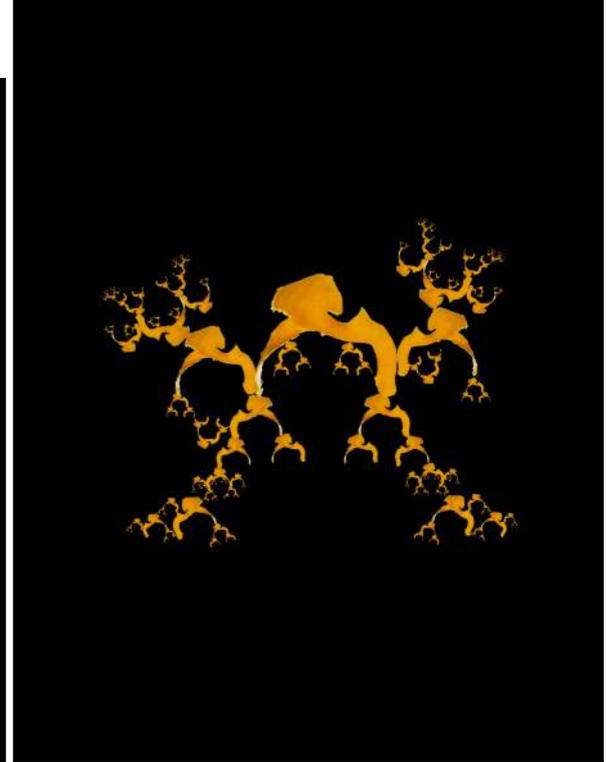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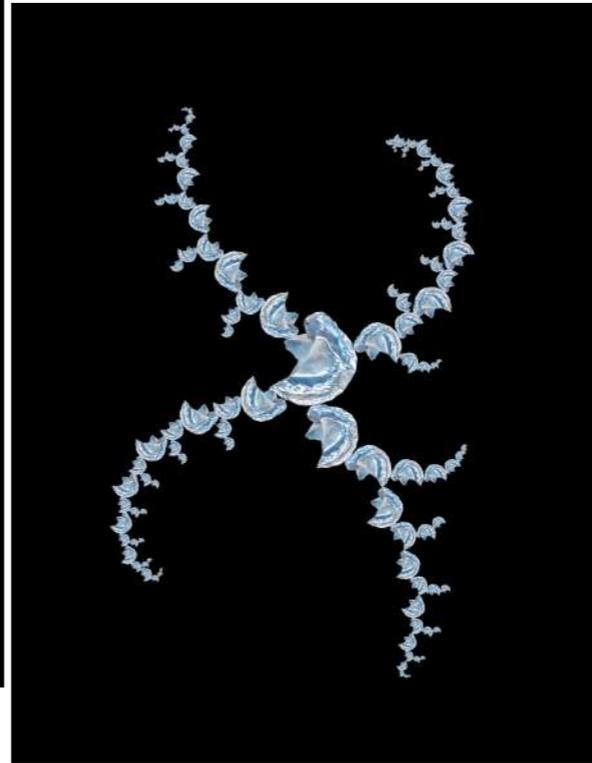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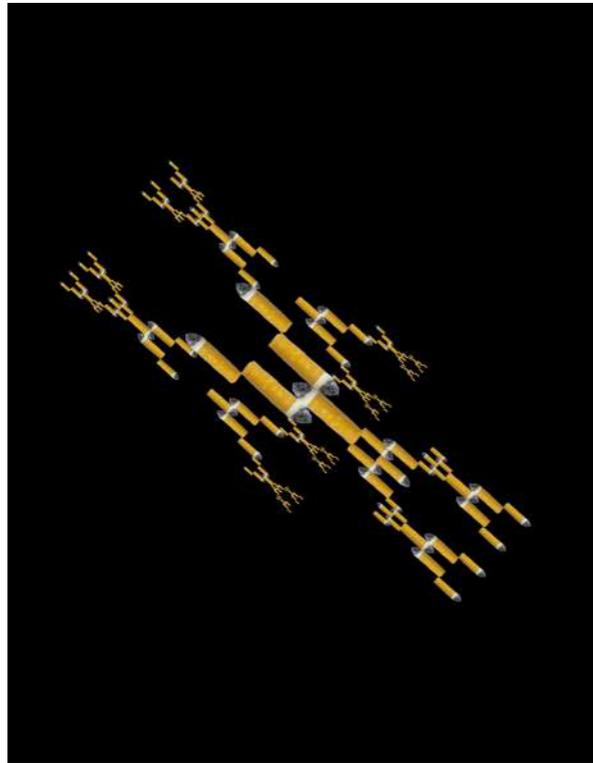


전개도의 형식으로 구현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은 타인에게 비물질화된 사적 영역의 간접체험을 제공한다.

나선형 변이

합성 사진
알루미늄 판에 디지털 프린트
각 50 x 65 cm
총 10종
2019-2021

이들은 일종의 가상 유기체이다. 쓰레기의 사진으로 생성된 이들의 형태는 반복을 거치며 각자 점차 고유한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
사소함에서 시작되어 예기치 못한 하나의 거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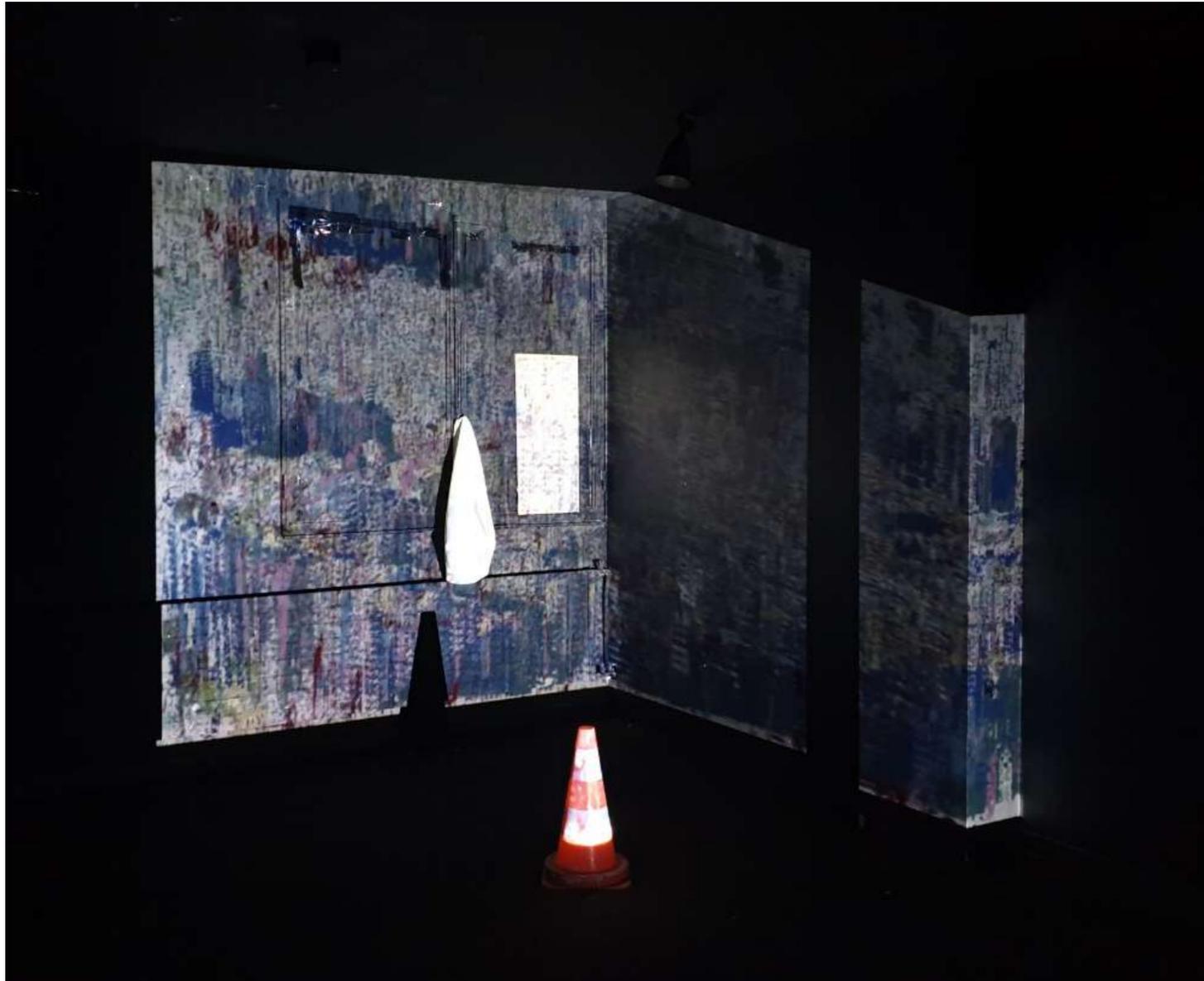


비닐봉지의 형태를 흉내낸 무언가는, 비닐봉지 이미지를 합성하여 생성된 가상의 비닐봉지의 이미지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다.
실제 비닐봉지들 사이에 놓인 그것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 사이에 걸쳐있다.



위장된

장소 특정적 설치
가변크기
스티커에 디지털 프린트, 종이, 테이프, 비닐봉지
2021



<https://youtu.be/OyEioUqSAAQ>

이탈

가변설치
 단채널 영상 사운드, 1'05"
 가벽, 검은천, 폼보드, 로드콘
 2018-2022



도시에 있는 서로 비슷한 아파트 건물의 거대한 군집은 흔히 아파트 숲이라 불린다.

획일적 풍경의 일부였던 파편들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겹치고 어긋나며 허공을 불규칙하게 부유한다. 이 풍경은 도시에 대한 나의 오랜 감상을 대변한다.

정지운

suncupboard@gmail.com
jjwxyz.com
Instagram @jjwxyz

+82 10 7191 2412 (KR)
+33 6 98 87 95 51 (FR)
kakaotalk : dlgm22

_이력

2018-2022

ESAAIX (École Supérieure d'Art Aix-en-Provence Félix Ciccolini), DNA, 프랑스

2009-201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서울, 한국

_레지던시

2023-2025

Ré : édition, Forest, 몽후즈, 프랑스

_전시

_개인

2024

L'universalité du commun, Plast!, 파리, 프랑스

_2-3인

2024

어제 본 내일의 아침 part2, 베타클럽, 군포, 한국

_그룹

2025

Festival de fin du Kooi, Kooi, 브뤼셀, 벨기에
Fanzineist Vienna, Semperdepot, 비엔나, 오스트리아
Club x ZNAK, Znak house,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4

Saint Germain des Prints, ENSBA, 파리, 프랑스
Text-ure, CICA 미술관, 김포, 한국
Ré-unissons, Forest, 몽후즈, 프랑스

2023

Ré : édition - porte ouverte, Forest, 몽후즈, 프랑스
The beauty of noise, Galería Agaphe, 바르셀로나, 스페인
Les courtes soirées d'hiver, Par tout artiste, 렌느, 프랑스

2022

En Provence, Espace Aixagone, 생까나, 프랑스

2021

Lay-out, Pavillon Bosio, 모나코, 모나코
Demain la terre, avec Artis Cura, Belleville Boson, 파리, 프랑스

정지운은 현실과 서사의 교차 지점을 탐구하는 예술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설치, 드로잉, 영상, 디지털 인터랙션 등의 매체를 통해 그는 개인적·집단적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얽히면서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한다.

이미지와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그는 사물과 공간, 언어의 잔여물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난 유동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찾으려한다.

그의 작업은 언어, 기억, 정체성이 교차하는 구조를 드러내며, 참여자와의 교류 속에서 의미가 변형되는 장치들을 배치한다. 열린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 관객이 직접 개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몰입적 경험을 조성하고자 하며, 텍스트와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디지털적 공간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인터랙티브 플랫폼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서사적 참여와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시도 중이다.

작업노트

출퇴근길 지하철을 메우는 인파, 끊이지 않는 SNS의 흐름, ‘자신을 사랑하자’는 격려부터 ‘한 번뿐인 인생, 솔직한 욕망을 따르자’는 구호까지—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몸짓처럼 보인다. 넘쳐나는 정보와 축적된 역사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따르는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 기저엔 채워지지 못한 욕망이 버티고 있다. 대부분의 잡음은 생각보다 거창한 이유보다는 각자의 주관적인 절박함을 도화선으로 하여 발생한다.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충족되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 뿐일 거다.

아마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현실을 대체할 이야기를 만들어오지 않았을까.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작된 상상은 이제는 스크린 속으로, 피드 속으로, 가상현실의 알고리즘 속으로 이어진다. 욕망은 그 자체로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현실을 잠식하며 우리 옆에 앉는다.

이야기 없는 순간에도 이야기를 소비한다. 보이는 모든 것은 이미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식의 포장지를 입고 있다. 시력이 나쁜 이가 맨눈으로 풍경을 보다가 다시 안경을 썼을 때 느끼는 선명함의 부담처럼, 가공되지 않은 현실은 우리를 쉽게 압도한다. 특히 추하거나, 불편하거나, 눈 돌리고 싶은 장면이라면 더더욱. 아름답지 않은 현실, 축소되지 않은 감정, 대체되지 않은 순간.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극이다. 그를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 바로 욕망이라면,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야말로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작동 구조일지도 모른다.

2025년, 정지운